

2023 년 2 월 11 일 "(아바드의 사람들 5) 말씀으로 단련되다"(창 50:15-21)

오늘은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아바드의 삶을 살아낸 용서의 사람, 요셉을 살피겠습니다.

[1] 요셉의 인생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상인에게 팔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17 세). 그는 자기가 섬기던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갇히는데, 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귀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요셉

시 105:17-19 을 보면, 요셉의 발에는 차꼬가 채워지고, 몸에는 쇠칼이 씌워집니다. 아마도 그는 보디발의 아내를 탕했고, 이어서 형들을 탕했고, 아버지와 자신까지 탕했을 것입니다. 원망과 후회가 가득한 암울한 마음이었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요셉을 단련시키십니다(19 절).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며 이러한 삶의 바닥에서 네 인생 마치게 할 계획은 없으심을 확인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지를 결단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처와 상처 준자들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인도하신 목적을 향해 가려면 이것이 인간됨의 기본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만남으로 성품과 관점이 새롭게 되어 자유인, 즉,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훗날 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형들이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그는 형들을 받아주고 위로하여 줍니다.

[3] 말씀으로 단련된 후

요셉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형들의 못된 행동에 아파하기 보다, 말씀과 부딪히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훨씬 나은 삶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고 싶어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누군가를 탓하며 한을 품은 사람이 많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처가 심해서가 아니라 용서를 배우지 못해서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임을 보지 못한 이유입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이제는 양갓음 할 것이라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창 50:17).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용서의 진심을 전합니다(50:19-21).

요셉의 용서와 돌봄은 한 집안의 형제들 차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훗날 이 형제들이 12 시조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건국 정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용서가 없었다면 이 형제들은 요셉의 휘하에서 종속되어 또 다시 종과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용서는 가족 안에서 형제들을 돌보고 책임져 주는 차원을 넘어 미래의 그들의 나라가 용서의 정신으로 세워지고 성장하게 하는 진정한 아바드의 공동체의 시작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가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기본임을 각인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날 우리 삶에서도 이 용서의 가르침을 무엇보다 절실하고 확실하게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용서가 기초가 되는 성도님들의 개인적 삶, 가정, 목장,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요셉이 형들 어떻게 용서하게 되었습니까? 요셉의 내면에서 거쳤을 과정들을 말씀해 보세요.
2. 나의 인생에서 나는 용서의 실천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용서의 정의에 대해 각자 말씀해 보세요.